금주의 법구-〈법집요송경〉
인색하고 옹졸한 마음을 버려라.
그것이 최상의 믿음이다.
믿음은 생사의 강을 건너게 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4월 2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48호 2017년 5월 24일 수요일



대행선연구원은 5월 19일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대행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전 발표자와 토론자가 종합토론에 나선 모습. 사진=노덕현 기자

大行禪 연구·홍포 첫 발 내딛다

대행선연구원, 5월 19일 제1회 학술대회

대행 선사 탄신 90주년 맞아
이평래 원장 등 교계 학자들
대행선 사상 연원·특징 고찰

본래성불·여래장서 접점 확인
"법성종·남종선 근거해" 주장
행적 통한 '혁신불교' 조명도

"네 안의 한마음, 바로 그것이 네가 찾는 붓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행 선이다."〈이평래 원장〉

"대행선은 달마로부터 전승돼 온 조사선풍의 바탕인 본래성불 사상에 닿아 있음을 고찰할 수 있다."〈김호귀 연구원〉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선사(1927~2012)의 선사상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은 5월 19일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대행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행 선사 탄신 90주년 및 열반 5주기와 연구소 개원을 맞아 개최한 이날 학술대회는 '대행선' 연구와 대행 선사 가르침 홍포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날 참여 학자들은 대행 선사의 선법(禪法) 및 한마음 사상에 대한 연원과 교리적 근거 등을 분석·고찰했다.

공통적으로 학자들은 "한마음의 원리를 종지(宗旨)로 삼고, 주인공(主人空)의 편재(遍在)를 본체(本體)로 삼으며, 오공법(五共法)의 실천을 묘용(妙用)으로 하여 각각 종과 체와 용의 구조로 이뤄져 있다"고 대행선을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이런 구조에서 학자들은 교리적 근거와 사상적 연원을 찾았다. 이평래 대행선연구원장은 대행 선사의 한마음을 사상적으로 가장 잘 드러낸 것을 〈대승기신론〉의 '여래장 사상'이라고 봤다.

그는 "〈대승기신론〉은 한마음을 주체로 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중생의 본바탕을 진여 법신이라는 전제 아래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본디 중생의 바탕이 붓다이므로 밖에서 붓다를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붓다임을 굳게 믿고, 자신의 내면을 관하라는 대행선의 가르침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행 선사가 한마음을 실체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행 선사의 한마음을 실체라고 비판하는 것은, 법신·보신·응신의 삼신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호귀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조사선을 바탕으로 한 '본래성불' 사상이 대행선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호귀 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법어에는 근원적 한마음의 원리가 설명돼 있는가 하면, 때로는 본래적 주인공의 관법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때로는 평등적 오공의 공동체 의식으로 실현된다"면서 "대행선에서 본래성불 사상이야말로 이들 상호간의 유기적인 구조일 뿐만 아니라 중생 자신이 본래 부처였음을 확신토록 하는 수행법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대승기신론〉에 나타난 일심(一心)사상과 대행 선사가 주창한 '한마음'에 대한 교리적 상관관계도 조명됐다. 박소령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대행 선사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무조건 놓고 지켜보는 실천법인 주인공관을 제시해 대중들이 일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용이하게 자각하도록 했다"며 "한마음 사상은 생활불교 강조로 이어져 현대의 대중들에게 불교가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하는 실천사상"이라고 강조했다.

대행선에 대한 대략적인 선종 계보 분석도 나왔다. 이평래 원장은 대승불교를 천태종·삼론종·선종이 주류를 이루는 법성종(法性宗)과 아비달마·유식 등이 속한 법상종(法相宗)으로 분류하고 대행선은 '법성종'을 기반해 출발한 선종에 충실함을 역설했다.

이평래 원장은 "법성종을 기반한 대행선은 인간의 본바탕을 붓다와 같은 한마음으로 본다. 한마음을 진여·불성과 같이 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붓다라는 것"이라며 "대행 선사의 가르침은 붓다를 찾아 떠돌지 말고 네 안에서 붓다를 찾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는 대행선은 현실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마의 〈이입사행론〉과 통한다고 봤다. 수행과 현실을 둘로 보지 않고 현실에 참여해 자비를 구현하는 것이 수행의 완성이며, 이입으로 가는 길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 대행 선사의 오공의식이라는 것이다.

그는 "달마의 〈이입사행론〉과 대행 선사의 오공의식을 대비할 때 상통점이 많은 것은 대행 선사 역시 남종선의 사상적 연장선상에 서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대행 선사의 행적을 좇아 그 안에서 담긴 '혁신불교'를 조명한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의 논문도 눈길을 끌었다. 김광식 교수는 대행 선사가 활발히 활동한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약 30년의 기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공과를 분석했다.

그는 "대행 선사의 불교혁신은 기복 및 경전 중심에서 참선 중심의 포교, 소외자 중심의 포교, 선법가로 지칭된 음악 포교, 서적 및 미디어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포교, 일원상(一圓相) 수용, 참선의 독창성 등을 거론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대행 선사의 활동은 기존 주류 종단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혁신불교적인 흐름의 기조 하에서 전개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서 발표된 논문들은 영역 작업을 거쳐 한글·영역 합본 형태의 논문집으로 출간돼 국내외 유명 대학과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관련 기사 A4·5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만해대상 '침팬지학자' 제인 구달 등 4인 선정

만해축전추진위, 2017 만해대상 수상자 발표


살레


제인 구달


최동호


클레어 유

만해축전추진위원회는 2017 만해대상 수상자로 '하얀헬멧'(평화부문), 제인 구달(실천부문), 최동호 고려대 명예교수 및 클레어 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 한국학센터 상임고문(문예부문 공동수상)을 선정했다고 5월 17일 밝혔다.

평화부문 수상단체 하얀헬멧(대표 살레)은 2011년 내전이 발발한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구호단체로,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종파에 관계없이 전쟁터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고 있다.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 2014년 공식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약 8만 명 이상을 구조했다. 약 270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이다.

실천부문에는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83)이 선정됐다. 제인 구달은 세계적 침팬지 학자이자 환경 및 동물권 운동가로, 유엔 평화대사로서 인류사를 통틀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구달은 침팬지에게 번호를 부여해 관찰하던 관행을 깨고 이름을 붙여 연구함으로써 동물에게도 감정과 개체적 개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후 제인 구달은 1977년 제인구달연구소를 창립해 침팬지 보전 운동 및 자연보호 활동에 앞장설 뿐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140개국 8000여 그룹에서 진행 중인 환경운동 네트워크 '뿌리와 새싹' 프로그램도 전개했다. 현재도 구달은 1년에 300일 이상 전 세계를 다니며 지구와 환경을 위한 강연회를 열고 있다.

아울러 문예부문에는 최동호(69) 고려대 명예교수(한국시인협회장)와 클레어 유(79) 버클리대 한국학센터 상임고문이 선정됐다.

최동호 교수는 1976년 첫 시집 〈황사바람〉을 발표한 중진 시인이자 197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으로 당선한 현장비평가이며 대학에서 한국 현대시를 연구해온 학자이기도 하다. 〈아침책상〉(1988) 〈딱따구리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1995) 〈공놀이를 하는 달마〉(2002) 등 7권의 시집을 발간했다.

클레어 유 상임고문은 1980년부터 버클리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2001년부터 한국학센터 소장으로 활동했다. 시인 고은의 시집을 미국에 번역해 소개하는 등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했단 평을 받고 있다.

한편 만해대상 시상식은 8월 12일 강원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다.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원, 공동수상의 경우 5000만원씩 수여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2000여 운수납자, 정유년 하안거 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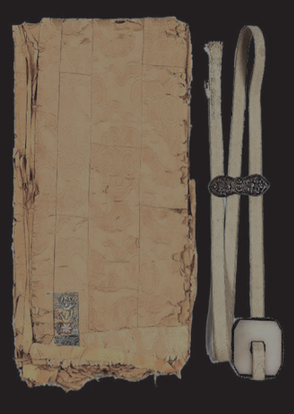
진제 스님 "대오견성 의지와 용맹심 갖추라"

불기2561년 정유년 하안거 결제가 5월 10일 전국 조계종 100여 개 선원서 일제히 봉행됐다. 올 하안거에는 비구·비구니 수좌 2000여 명이 방부를 들이고, 끝없는 화두참구에 들어갔다.

하안거 결제에 앞서 5월 8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수행납자들의 용맹정진을 당부하는 결제법어를 내렸다. 스님은 "전장에 나서는 장수가 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듯이 선불장(選佛場)에 임하는 수행자들은 이번 결제에 반드시 대오견성하고 말겠다는 의지와 용맹심을 먼저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며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일체처일체시(一切處一切時)에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는 것이 화두참선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생전예수재 및 가사불사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사에서는 윤달을 맞이하여 생전예수재와 가사불사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들을 뉘우치고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윤달을 맞이하여 선망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자신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현재를 닦아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통도사는 부처님의 친착가사와 남산율종의 종조이신 자장스님의 친착가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에 본사에서는 윤달을 맞이하여 부처님과 조사의 법을 가사로 지어 전국의 대덕스님들께 공양올리는 가사불사를 봉행합니다. 스님들께 올리는 공양중에 으뜸인 가사불사에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시어 무량한 공덕을 짓는 기회 되시기를 발원합니다.

가사불사
입 재 2561년 5월 28일 (음 5.3) 오전 10시
회 향 2561년 7월 11일 (음 윤 5.18) 오전 10시
동참금 스님지정 50만원, 대가사 10만원, 오조가사 5만원
※스님을 지정하여 가사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생전예수재
입 재 2561년 5월 28일 (음 5.3) 오전 10시
회 향 2561년 7월 15일 (음 윤 5.22) 오전 8시
동참금 설판 100만원, 동참 5만원, 영가 1위 1만원
문 의 전화 055)381-1288, 팩스 055)372-7010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향전영배 합장